

역대급 중간배당...‘여름 보너스’가 온다

28일까지 매입해야 명부에 올라
수출 대박 삼양식품 등 첫 합류
호실적 행진 4대 금융주도 매력

6월 말 중간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 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국내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배당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간배당주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28일까지 매수해야 중간배당금 수령

배당은 기업이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시기에 따라 결산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 등으로 나뉜다. 이중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반기(6월) 기준 1회 지급 후 기말배당까지 합쳐 총 연 2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6월30일이 배당 기준일이라 반기배당으로, 배당금이 주로 7,8월에 지급돼 일명 ‘여름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 기준일인 6월30일이 다가오면서 투자자의 시선이 중간배당을 결정할 종목들로 향하고 있다. 중간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중간배당을 결정할 상장사는 74개로 역대 최대치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하면 중간배당 종목은 더 늘어날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중간배당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있다. 사진은 연 최저점인 코스피 2391.03으로 장을 마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뉴스시스

전망이다.

중간배당은 기업 입장에서 실적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증시 불황기에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또 ESG경영이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중간배당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업들이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 확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주주친화정책 일환으로 중간배당을 늘리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호실적과 탄탄한 재무구조가 매력

20일 코스피가 2391.03, 코스닥이 769.92에 장을 마치며 연저점을 경신한 가운데, 중간배당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불린다. 중간배당이 배당기준일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자, 배당금 역시 평가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간배당에 나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고 있다는 게 매력으로 꼽힌다. 올해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도입한 ‘불닭볶음면’으로 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사인 SD바이오센서 등이 대표적이다.

한 주식투자자는 “최근 신규 중간배당이 확정된 삼양식품과 SD바이오센서 주식을 매수했다. 중간배당 도입 자체가 실적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중간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 매력적이고, 연 2회 배당금을 받는 만큼 투자 기

업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매 분기마다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주사도 중간배당에 나설 준비를 갖췄다. 그간 자본 건전성을 이유로 배당 제지를 권고해왔던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들어서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재선 연구원은 “불황을 경고하는 거시경제 환경에서도 중간배당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이라며 “중간배당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통한 안정적 수익은 물론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 선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김용우 더존CT그룹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신한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신한은행이 대한상공회의소·더존비즈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9만 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된 매출채권 팩토틀링 서비스를 다양한 금융상품과 함께 제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매출채권 팩토틀링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금융사에 만기 전 조기 매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로 원활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과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 | 하나은행

하나은행, 심평원과 ‘ESG 경영’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SG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거대 은행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계적 자금 관리를 지원한다. 또 양측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ESG경영 확산을 위해 강원도 내 공공의료원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 진흥사업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사회적 기업 후원 등에 뜻을 모았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SG 경영 동반자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업 범위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손태승 회장 “나눔에 앞장”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우리금융이 17일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 그룹사가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하는 공익재단이다. 7월 정식 출범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자립과 성장, 복지 및 문화지원, 생활 환경 개선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 미래재단의 투병하고 진정성 있는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KB “와일드리프트 아마추어 챔피언에 도전하세요”

‘KB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 접수
참가만해도 통신비 등 혜택 풍성



‘KB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 포스터. 사진제공 |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의 아마추어 챔피언을 선발하는 ‘KB스타뱅킹 e스포츠 대회’를 연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7일까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7월 11일까지 대회 페이지에 참가코드를 등록해 팀을 구성하며 팀 구성은 후보 선수 2명을 포함해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7월 16,17일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4개 팀이 결정되며 본선은 7월 23일 열린다. 본선은 오후 4시부터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와일드 리프트 전문 중계진의 해설과 함께 생중계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총 1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와일드 리프트 무작위 스킨 상자와 리브렐 통신비 혜택을 제공한다. 회사 측은 “향후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통해 MZ세대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8월 중순까지 서울 흥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KB청춘마루에서 ‘Green Month, 그린마루’를 운영한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2 Waves: 결정될 미래’ 미디어 아트,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제로웨이스트 전시, KB국민은행의 친환경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KB 그린 존 등 친환경 콘셉트에 맞춘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1일(화) 음력: 5월 2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진다. 학업, 연구, 예술 분야에서 서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호랑이가 뱀을 만나면 망신살이다.	작은 것에 만족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을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면 급전적 낭비가 따른다.	이일 저일 손해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혼자서 일처리 하지 말라.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어렵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바라는 게 많은 날이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날이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권태스러운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격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움직이는 날이다.						